‘가출팸’ 급증, 범죄도 확 늘었다

〈가출 패밀리〉

집나온 10대들 PC방·원룸서 무리지어 생활… ‘범죄패밀리’로

지난 13일 광주 남부경찰서 형사과. 초라한 행색의 청소년들이 경찰 손에 끌려왔다. 13살 김모군부터 21살 정모씨까지 8명. 4명의 중학생과 3명의 고등학생으로 형성된 이른바 ‘가출팸’(가출 패밀리)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인1조로 지난달 초 동구의 한 피자집 담을 넘어 음료수 6병을 훔치고, 서구의 상가에서 현금 12만원을 몰래 가져오는 등 1개월여 동안 8차례에 걸쳐 59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 또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구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훔치는 등 5대의 오토바이와 열쇠 7개를 보관중이었다.

이들이 ‘가출팸’을 형성한 것은 지난달 초 북구의 한 PC방에서였다. ‘오디션’이라는 게임을 하며 채팅을 통해 팸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8명의 청소년들은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다. 훔친 돈이 있으면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고, 돈이 떨어지면 아파트 옥상의 저수조에서 밤을 보냈다. 분식집에서 튀김 등을 사고 주인이 포장하는 사이 들고 도망가는 식으로 끼니를 해결한 일은 다반사. 덩치 크고 나이가 가장 많았던 정씨가 ‘팸’을 이끌었다.

고교를 중퇴하고 불안장애를 가진 정씨는 집 밖을 떠돈 지 수년째. 나이가 많은 정씨의 지시에 청소년들은 거리낌없이 돈과 오토바이를 훔쳤다.

경찰은 김모(14)양을 제외한 7명이 결손가정 출신이라고 밝혔다. 나주 출신 박모(16)군은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던 중 할머니가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갈 곳이 없어 가출한 경우다. 직접 박군의 집을 찾아간 경찰은 “집이 이미 폐허로 변해 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가출청소년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가출청소년은 지난 2007년 274명, 2008년 796명, 2009년 722명, 2010년 1032명, 2011년 921명으로 5년 새 3.5배가 늘었다.

가출팸이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면서 청소년 절도, 강도 등의 사건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결손 가정의 가출 청소년이 외로움 해소와 보호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또래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방값과 생활비를 위해 절도 등 범죄단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 인계를 위해 부모에게 연락했지만 끝까지 찾지 않은 가족도 있다”면서 “부모의 보살핌과 애정없이 자란 청소년들이 결국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절도범 10명중 4명이 청소년

광주경찰, 수법 지능·조직적
휴대전화·자전거 절도 늘어

올 들어 광주지역에서 검거된 절도범 10명 중 4명이 10대 청소년(만 14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스마트폰과 자전거 절도로 붙잡히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며, 수법도 점차 지능·조직·계획적으로 변하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말까지 검거된 절도범(특수절도 포함) 3838명 중 10대는 1509명으로 3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붙잡힌 절도범 4734명 중 10대가 34.8%(1652명)였던 것에 비하면 4.5%P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범죄자로 전락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범죄 유형도 예전 단순 차량털이에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스마트폰과 자전거 절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절도 발생건수는 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으며, 자전거 절도 사범도 지난해 40명에서 올 들어 같은 기간 71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9월에는 고교생 4명이 미리 교도소에 갈 사람까지 정해놓고 연습까지 한 뒤 금은방에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원참 〈8691〉 김종두

영광원전 직원 행불

영광원전 직원이 행방불명돼 경찰과 119가 수색하고 있다.

15일 낮 12시30분께 원전 직원 A(37)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A씨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영광군 불갑저수지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지만 차 안에는 휴대전화와 점퍼 등만이 놓여 있었다.

A씨는 5개월 전부터 원전 기계실에서 일해 왔으며 최근 논란이 된 미검증 부품 구입 등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과 119는 저수지 일대에서 A씨를 수색하는 한편 지갑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차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행방을 찾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국제식품전’ 디저트 전시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2 국제식품전’(15~18일)을 찾은 관람객들이 서영대학교 호텔조리학부 학생들이 전시한 다양한 디저트를 구경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통진당 부정경선 광주·전남 82명 사법처리

전국 462명 기소

지난 4·11 총선 직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합진보당 당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구속자의 절반 가까이인 8명이 구속 기소되고 7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이 114명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5일 “지난 3개월간 전국 14개 검찰청별로 대리·중복투표 등의 의혹이 있는 1735명을 수사한 결과 462명을 사법처리하고 858명은 입건유예, 20명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나머지 395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구속자 중에는 오옥만(여·51), 이영희(50), 윤갑인재(50)씨 등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3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를 동일 인터넷주소(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제한했다.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 중 자백하는 경우도 모두 입건유예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혐의자 상당수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했으나 대리투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이같이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이번 사건은 당내 조직 동원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남구, 견인업체 취소 부당”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주)성도아이디에스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광주시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견인대행법인지정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도아이디에스가 견인이동 통보서 보고를 누락했다고 해도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 일정액을 포탈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5회 위반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무처리 준칙에도 위반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불러도 오지 않는 보안업체

가게 여주인이 절도범 의심 신고 지연 출동 논란

네일아트 가게 여주인이 손님으로 가장한 절도범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계약을 맺은 보안업체에 신고했으나 업체측이 차량 고장을 이유로 보안요원을 곧바로 보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주는 “서너 차례 재촉 전화를 했으나 보안요원은 출동하지 않았고, 절도 발생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가게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한 달 전 출소한 특수강도·강간 등 7범의 흉악범으로 밝혀져 이 주인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광주시 북구에서 네일아트가게를 운영하는 곽모(여·31)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0분께 가게에 들른 20대 후반의 남성이 범죄자로 의심돼 계약된 N보안업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업체 직원이 “지금은 차량이 고장나 출동하기 힘들다”고 했으며, 이후 재촉 전화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만 했다는 것이 곽씨의 주장이다.

오른손 손톱의 금색 매니큐어를 지우고 싶다며 가게를 찾은 이 20대 남성이 옆 자리에 있던 여자 손님(25)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을 곽씨가 안 것은 그로부터 40분 뒤였다. 가게를 나온 이 남성이 서구 유흥주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38만원을 결제했다는 문자가 손님의 휴대전화로 발송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N보안업체 관계자는 “직원 차량이 고장나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며 “직원이 급한 일이면 지나가는 택시라도 잡아서 빨리 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북부경찰은 이날 곽씨 가게 손님의 지갑을 훔친 김모(25)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퇴폐업소 불법 취업 외국인 15명 적발

광주출입국사무소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5일 “지난달부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업소 30여 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태국과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태국 국적 여성 11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태국마사지업소에 취업한 뒤 불법체류했으며, 중국 국적 여성 4명은 광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이었다. 마사지업소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면서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지만 새벽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가지 못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연하 남친 카드 슬쩍 ‘고향 앞으로’

쌍나팔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나서 1년 넘게 사귄 연하 남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서행.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32)씨가 지난 6월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통닭집에서 남자친구 이모(25)씨의 현금카드를 훔쳐 100만원을 인출한 뒤 고향인 부안으로 달아났다는 것.

○…경찰의 수사에 압박을 느껴서 자수한 김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 · 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푹 자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천시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20호 [광고]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파격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핀×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